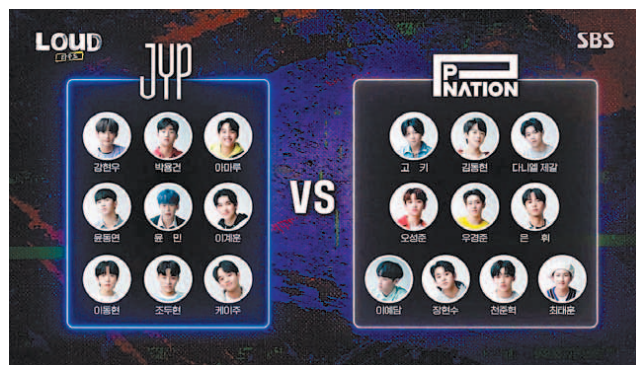




SBS '라우드' 생방송 라운드 돌입 3주간 승부로 최종 데뷔 멤버 확정

SBS 아이돌 오디션프로그램 '라우드'가 '빅 이벤트'를 펼친다. 21일부터 3주 동안 데뷔 멤버 선발의 마지막 관문인 '생방송 라운드'를 진행한다.

'라우드'는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박진영과 싸이가 각자 소속사의 색깔을 담은 글로벌 보이그룹의 멤버를 뽑는 과정을 담고 있다. 최종 선발된 두 팀은 각각 박진영의 JYP엔터테인먼트와 싸이의 피네이션 소속으로 데뷔한다. 4%(닐슨코리아) 안팎의 시청률로 두 사람의 스타성에 비해 다소 아쉬운 성적이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할 예비스타들을 향한 관심이 방송가 안팎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계훈, 케이주, 은휘 등은 10~20대 시청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일찌감치 팬덤을 구축하고 있다. 화제의 인물을 데려가려는 박진영과 싸이의 신경전도 시청 포인트로 떠올랐다.

15일 방송에서 두 사람은 각각 강현우와 장현수·고기를 추가 합격시키면서 저마다 9인과 10인 예비 데뷔조를 완성했다. 이제는 '팀 대결'을 앞두고 있다. 두 팀은 생방송 무대 도중 시청자 투표를 받아 승패를 겨룬다. 지는 팀은 라운드마다 1명의 탈락자를 꼽아야 한다. 모두 세 차례의 승부를 통해 각 팀의 최종 데뷔 인원이 결정된다. 이들의 데뷔가 이제 시청자의 '손'에 달렸다. 유지혜 기자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밥벌이 현장이 인기 예능으로...머선129?

회사 방문해 생소한 직업군 소개
탐방·커머스 포맷 벗고 재미 발굴
기업 "소비자와 공감 기회" 반색
시청자엔 직업 세계 호기심 자극

직장인들의 '밥벌이 현장'이 예능 콘텐츠의 새로운 무대로 뜨고 있다. MBC '아무튼 출근!', 카카오톡TV '머선129', 유튜브 '네고왕' 시리즈 등이 다양한 직장을 찾아 생소한 직업과 직군 등까지 소개하면서 시청자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직장이라는 새로운 소재와 배경을 통해 시청자의 친밀감을 끌어내고 있다.

●CEO도 직접 '딱지치기' 경쟁까지

개그맨 강호동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머선129'는 편의점·식품·뷰티 등 다양한 브랜드 사업체를 무대로 삼는다.

강호동과 각 사업체의 임직원이 구둑자를 위한 경품을 두고 휘파람 불기, 딱지치기, 병 던지기 등 기상천외한 대결을 펼친다. 경영자들까지 소매를 걷어붙이고 강호동에 맞서 '신중하게' 딱지를 내려치는 모습이 재미를 더한다. 촬영에 앞서 미리 사내 대회를 열어 1등을 선발한 회사도 있다. 딱지 대결에 참가한 직원이 부회장을 "형님"이라 부르며 응원을 부탁하는 장면 등이 화제를 모으면서 각 클립 영상은 최대 290만 조회수를 얻기도 했다.

'아무튼 출근!'도 소방관, 주류회사 영



직장인들의 일터를 무대삼아 신선한 재미를 이끌어내는 예능프로그램들이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사진은 개그맨 강호동이 다양한 회사 직원들과 대결을 벌이는 과정을 담은 카카오톡TV '머선129'의 한 장면. 사진제공 | 카카오톡TV

업팀장, 패션회사 MD, 성담음악 총감독 등 다양한 직장인의 면면을 소개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유튜브에서 인기를 끈 직장인 '브이로그'(일상을 담은 영상) 형식을 통해 출연자들이 직접 자신의 일터와 업무를 소개한다. 이들의 고된 노동의 모습도 균형 있게 담아 직장인 시청자들로부터 공감의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 시즌3을 새로 시작한 '네고왕'은 래퍼 단딘과 슬리피가 각종 회사와 협상을 벌여 제품 할인 이벤트를 연다. 이들은 회사 직원들과 편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면서 현실적인 업무환경을 드러내고 있다.

●"대중과 거리감 좁히는 역할"

이는 과거 대부분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이 선보인 기업 탐방이나 시청자와 브랜드를 연결해 물건을 사고파는 '커머스' 포맷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또 출연자들의 대결 구도, 직장인 '브이로그' 등 요소를 부각시켜 시청자와 거리감을 좁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튜브 등 각종 플랫폼에 공개된 클립 영상에는 '직

원들이 정말 유쾌하다'(머선129) "내 밥벌이에 열정을 가지고 사는 출연자들을 보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아무튼 출근) 등 호평의 댓글이 달렸다.

해당 무대에 참여한 직장 관계자들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머선129'에 참여한 LG생활건강 측은 16일 "재미있는 소재로 소비자의 공감을 얻어 한결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면서 "수평적인 사내문화도 수시채용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음원차트에서 사라진 드라마 OST...왜?

로맨스 드라마의 시청률 참패 원인
슬의생2 '좋아좋아' 톱10 체면치레

드라마의 인기를 보장해온 OST가 각종 음원차트에서 사라졌다. 올해 초까지 내놓기만 해도 곧장 차트 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것과 달리 다양한 스타들과 음원 강자들이 신곡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폭발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배우 서현진, 가수 백아연, 그룹 사이니의 온유, 트로트 가수 영탁, 홍지윤 등이 최근 OST 대열에 합류했지만 화제성은 저조한 편이다.

김진우 가운차트 수석연구위원이 지난 달 발표한 올해 상반기 음원 결산 자료에

따르면 상위 400곡 중 OST 점유율은 12.1%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1%보다 6%포인트나 떨어졌다. 상반기 음원 종합 순위 톱10에 들어간 곡은 아이유가 부른 드라마 '최고의 사랑' 수록곡 '내 손을 잡아' 뿐이다. 2011년 발표했지만 최근 유튜브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며 역주행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가운차트 최신 월간 차트인 디지털 차트 집계에서도 각 달의 톱20에 오른 곡은 '멜로가 체질'의 수록곡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3월 기준 20위),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5월 12위·6월 19위), 이무진의 '비와 당신'(7월 14위)등 세 곡에 불과하다.



이런 저조한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2'(슬의생2)가 체면치레를 하고 있다. 16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집계하는 가운차트에 따르면 '슬의생2'에서 조정석이 부른 '좋아좋아'가 주

간 차트 10위를 차지했다. 가수 이무진의 '비와 당신'도 16위에 올랐다. 조정석은 뛰어난 보컬 실력으로 지난해 시즌1에서 부른 '아로하'로 지난해 종합 순위 3위에 오르며 '대박'을 터트렸다.

이처럼 드라마 OST가 흥행의 힘을 잃은 것은 최근 인방극장 로맨스 드라마의 침체와 관련이 있다. 수록곡과 배경음악이 이야기에 대한 시청 몰입도를 높이는 장치로 주로 활용돼 왔지만, 드라마가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이와 맞물려 OST도 덩달아 인기를 끌지 못하는 탓이다. 실제로 '간 떨어지는 동거'를 비롯해 '너는 나의 봄',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오! 주인님' 등 로맨스 드라마가 줄줄이 3~4%의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시청자의 시선 밖으로 사라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귀두확대 시술로 조루증 치료!!

주사로 귀두확대와 동시에 음경확대 가능!

10분 정도의 간편한 시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뇨기와 전문의 최종근 원장



- ▶국소마취로 시술시간은 10분! ▶시술후 술, 샤워는 당일부터 가능!
- ▶성관계는 일주일 후부터 가능! ▶시술 당일부터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



되는 효과와 동시에 귀두의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이 있어 사정이 지연되어 조루증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석이조의 시술법이다. 부작용으로는 약한 염증이나 일시적 부종이 될 수 있다.

건강 100세 파워!

최신! 전립선 운동기!



- 1.하루밤에 화장실을 5~6번씩 가십니까?
- 2.소변발이 가늘고 잔뇨감 때문에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 3.유지시간이 짧으십니까?

※ 이럴 땐 하루 10분 전립선 운동기로 운동시켜주세요.

※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 인체 구조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전립선을 정확하게 자극하여 10가지의 진동으로 강한 쾌감을 줌!

★최신 제품 : 빅사이즈 스프레이!

①이제는 먹지 않고 뿌린다!

②뿌린 후 5~10분 후면 큰 변화가 생깁니다.

[개인별 차이가 있음]

상담 문의 02-470-2093